

##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최은경\*\*

### || 차례 ||

1. 서론
2.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
3. 한국어 통합교재의 간접 인용 표현 제시 양상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에 대한 연구로서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출판한 통합교재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로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학습자 모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복잡한 문법의 경우 세부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어느 것부터 먼저 제시하고 어떤 예문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어교육의 초급 후반에서 중급 초반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인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간접 인용 표현을 32개의 세부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각 교재에서 제시된 시기와 순서, 특징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간접 인용 표현, 축약형, 교재 분석, 문법 항목, 세부 문법 항목, 구어, 제시 순서

\* 이 연구는 2016년 국제언어문학회 학술대회(2016.11.4)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육 부주임강사 ekchoi@dongguk.edu

## 1. 서론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수·학습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말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고려할 때 말의 규칙을 정리한 것이 문법이므로, 문법 제시는, 문법을 제시하느냐 제시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문법 항목을 교수요목으로 선정하느냐는 것,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는 것, 어떤 예문을 통해 제시하느냐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1)</sup> 가르치는 대상과 그 목적에 따라 교수요목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 어느 대상, 어느 목적의 교수요목을 선정하더라도 그 수준이 초급 후반과 중급 초반이라면 반드시 포함되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가 간접 인용 표현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간접 인용 표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한국어교육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다룬 연구는 형태, 통사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와 간접 인용 표현이 나타나는 담화 맥락을 중심으로 다루려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연구로는, 이종철(2001), 장미라(2008), 이금희(2009), 서희정(2013), 고경태(2014), 채숙희(2015), 송창선(2016), 서희정(2016), 강정미(2016) 등이 있는데 간접 인용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 후자의 연구로는 김지혜(2011), 한송화(2014)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간접 인용 표현 자체를 교육한다기보다는 간접 인용 표현이 한국어교육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 인용 표현의 연구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 왔으나 그 세부 항목을 분류하여 그 순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 연구에서는 생략하고 간접 인용 표현으로 한정한다.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문법 선정 및 배열의 원리, 한국어 문법 내용 및 체제 선정 원리 등은 김재욱(2009) 참조.

한국어교육은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통합교재가 해당 기관은 물론 자체 교재가 없는 다른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을 주요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판한 통합교재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

간접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내용의 문장 형태가 무엇이나, 들은 내용의 시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므로 학습자 모어로 진행되는 문법 집중 수업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에서는 세부 문법 항목이 나뉘어 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세부 문법 항목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전달하는 내용의 문장 형태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이나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가 쓰이고, 이들의 축약정도 각각 다른 형태가 있고, 들은 내용의 시제도 문법 항목에 다르게 표시되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나 과거이나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세부 문법 항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간접 인용 표현은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들은 내용의 문장 형태가 무엇이나에 따라 평서문인 경우 [평]으로, 명령문인 경우 [명]으로, 의문문인 경우 [의]로, 청유문인 경우 [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난이도를 고려하여 어미 활용에 제한을 두거나 문법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어미를 기본형이 아닌 ‘-아요/어요’의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항목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예시’로 동사 ‘가다’, 형용사 ‘바쁘다’, 명사 ‘친구’를 적용할 경우의 예를 추가해 보았다. [의1]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느냐고’로 써야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모어화자 일상의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냐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냐고’로 표기한다.<sup>2)</sup>

<표 1>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

순번	유형	세부 문법 항목	결합 조건	예시
1	[평1]	-니/는다고 하다 -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현재	간다고 해요. 바쁘다고 해요. 친구라고 해요.
2	[평2]	-았/였/였다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과거	갔다고 해요. 바빴다고 해요. 친구였다고 해요.
3	[평3]	-(으)리 거라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미래	갈 거라고 해요. 바쁠 거라고 해요. 친구일 거라고 해요.
4	[평4]	-니/는다고 했다 -다고 했다 -(이)라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현재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간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5	[평5]	-았/였/였다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과거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갔다고 했어요. 바빴다고 했어요. 친구였다고 했어요.
6	[평6]	-(으)리 거라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미래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갈 거라고 했어요. 바쁠 거라고 했어요. 친구일 거라고 했어요.
7	[명1]	-(으)라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가라고 해요.
8	[명2]	-(으)라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가라고 했어요.
9	[의1]	-냐고 하다 -(으)냐고 하다 -(이)냐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현재	가냐고 하다 바쁘냐고 하다 친구냐고 하다
10	[의2]	-았/였/였냐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과거	갔냐고 해요. 바쁘냐고 해요. 친구였냐고 해요.
11	[의3]	-(으)리 거냐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미래	갈 거냐고 해요. 바쁠 거냐고 해요. 친구일 거냐고 해요.

2)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6종의 통합교재의 경우, <고려>, <서강>, <연세>, <이화>에서는 ‘-냐고’로 표기하고 있다.

12	[의4]	-냐고 했다 -(으)냐고 했다 -(이)냐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현재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가냐고 했어요. 바쁘냐고 했어요. 친구냐고 했어요.
13	[의5]	-았/었/였냐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과거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갔냐고 했어요. 바빴냐고 했어요. 친구였냐고 했어요.
14	[의6]	-(으)ㄹ 거냐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미래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갈 거냐고 했어요. 바쁠 거냐고 했어요. 친구일 거냐고 했어요.
15	[칭1]	-자고 하다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가자고 해요.
16	[칭2]	-자고 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가자고 했어요.
17	[축약/평 1]	-ㄴ/는대요 -대요 -(이)래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현재 축약형	간대요. 바쁘대요. 친구래요.
18	[축약/평 2]	-았/었/였대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과거 축약형	갔대요. 바빴대요. 친구였대요.
19	[축약/평 3]	-(으)ㄹ 거래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미래 축약형	갈 거래요. 바쁠 거래요. 친구일 거래요.
20	[축약/평 4]	-ㄴ/는됐어요 -됐어요 -(이)됐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현재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간됐어요. 바쁘됐어요. 친구됐어요.
21	[축약/평 5]	-았/었/였됐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과거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갔됐어요. 바빴됐어요. 친구였됐어요.
22	[축약/평 6]	-(으)ㄹ 거됐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들은 내용이 미래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갈 거됐어요. 바쁠 거됐어요. 친구일 거됐어요.
23	[축약/명 1]	-(으)래요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축약형	가래요.
24	[축약/명 2]	-(으)됐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가됐어요.

25	[축약/의 1]	-내요 -(으)내요 -(이)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현재 축약형	가내요 바쁘내요 친구내요
26	[축약/의 2]	-왔/였/였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과거 축약형	갔내요. 바빻내요. 친구였내요.
27	[축약/의 3]	-(으)르 거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미래 축약형	갈 거내요. 바쁠 거내요. 친구일 거내요.
28	[축약/의 4]	-냈어요 -(으)냈어요 -(이)냈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현재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가냈어요. 바빻냈어요. 친구냈어요.
29	[축약/의 5]	-왔/였/였냈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과거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갔냈어요. 바빻냈어요. 친구였냈어요.
30	[축약/의 6]	-(으)르 거냈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들은 내용이 미래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갈 거냈어요. 바쁠 거냈어요. 친구일 거냈어요.
31	[축약/칭 1]	-재요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축약형	가재요.
32	[축약/칭 1]	-겠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과거의 발언임을 강조 축약형	가겠어요.

<표 1>은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하는 세부 문법 항목을 정리한 것인데 총 32개이다.<sup>3)</sup> 이 항목들을 교재에서 모두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효율

3) 관형형이나 ‘-(으)ㄴ/는데’의 경우 동사, 형용사, 명사와의 결합을 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 인용 표현 역시 [평1]로 표기했으나 동사, 형용사, 명사와의 결합을 분리하여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실제 경우를 고려하면 32개 항목 이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평1]이 나뉘어 제시되는 경우 동사와 결합하는 ‘-ㄴ/는다고 하다’를 [평1-1], 형용사와 결합하는 ‘-다고 하다’를 [평1-2], 명사와 결합하는 ‘-(이)라고 하다’를 [평1-3]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평4], [의1], [의4], [축약/평1], [축약/평4], [축약/의1], [축약/의4]]도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

적인 방법도 아닐 것이다. 간접 인용 표현이 주로 초급 후반에서 중급 초반에 제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중 어느 세부 항목을 어느 순서로 어느 정도 제시하느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재에서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 해당 교재의 제시 양상 분석을 토대로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3. 한국어 통합교재의 간접 인용 표현 제시 양상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정규과정 통합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교재가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물론 타 교육기관에서도 그 인지도에 걸맞게 두루 사용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인<sup>4)</sup> 통합교재를 이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를 <고려>로, 동국대학교의 『함께 배워요 한국어』를 <동국>으로, 서강대학교의 『서강 한국어』를 <서강>으로,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를 <서울>으로,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를 <연세>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 한국어』를 <이화>로 표시한다.

<표 1>의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이 해당 교재에서 어느 순서로 어떤 예문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는 간접 인용 표현이 해당 교재에서 어느 시기에 제시되는지를 정리한 것인데, 교재별 단위 수가 다르므로 총 단위 수를 고려하여 그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

#### <표 2> 통합교재별 간접 인용 표현이 제시된 단위

4) 분석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판된 통합교재 중 해당 기관의 규모(한 학기 재학생이 천 명 정도 또는 그 이상)를 포함한 인지도와 1급에서 6급까지의 완간 여부, 그리고 출판 시기를 고려하였다. 『서울대 한국어』는 6급이 기관 내에서만 제본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이나 간접 인용 표현이 제시되는 중급교재가 ‘최근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합교재	제시 단원	해당 급 총 단원 수
<고려>	3급 3과, 3급 14과	3급: 15
<동국>	2A 2과(3) 2B 5과(1), 2B 5과(4) 3급 1과, 3급 14과 <sup>5)</sup>	2A: 4 2B: 4 3급: 15
<서강>	2A 8과, 2A 9과 2B 3과, 2B 5과, 2B 8과 3A 2과	2A: 9 2B: 9 3A: 8
<서울>	3A 1과, 3A 2과, 3A 3과	3A: 9
<연세>	2급 7과(1), 2급 7과(2), 2급 7과(3), 2급 7과(4)	2급: 8
<이화>	3-1 6과, 3-2 8과	3-1: 7(1과~7과) 3-2: 8(8과~15과)

<표 2>에서와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모든 교재에서 초급 후반인 2급과 중급 초반인 3급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이 다른 문법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고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표 1>에서 제시한 32개의 세부 문법 항목 중 어느 것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3.1. <고려>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고려>는 <표 3>과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두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16번과 17~32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다고 하다’라고 제시한다는 것은 ‘-다고 해요’, ‘-다고 했어요’와 같이 어미활용을 포함하여 다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의 문장 형태나 시제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 모두 한꺼번에 다루고 축약형만 따로 다루는 것이다.

5) <동국>은 2012년 6급 교재의 출판으로 전급 완간을 한 후, 2015년 초급교재가 개정판으로 출판되었고, 중급교재는 2018년 초에 출판 예정이라고 한다. 3급 14과의 내용은 새로 출판된 2급에서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 3> <고려>의 표기로 정리한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고려>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3급 3과	-다고 하다	[평1-2]
	-냐고 하다	[의1-1]
	-자고 하다	[청1]
	-(으)라고 하다	[명1]
3급 14과	-대요	[축약/평1-2]
	-내요	[축약/의1-1]
	-재요	[축약/청1]
	-(으)래요	[축약/명1]

<고려>에서 문법 항목의 제목으로는 3급 3과에서 ‘-다고 하다, -냐고 하다,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와 14과에서 ‘-대요, -내요, -재요, -(으)래요’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예문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제목으로 표시된 대로 보자면 [평1-2], [의1-1], [청1], [명1]과 [축약/평1-2], [축약/의1-1], [축약/청1], [축약/명1]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로 제목은 그렇게 제시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관련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 (1) 가. 다음 달에 결혼 한다고 해요. [평1-1]
  - 나. 회사에 취직해서 바쁘다고 해요. [평1-2]
  - 다.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어요. [평1-3, 평4-3]
  - 라.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평2]
  - 마.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거라고 해요. [평3]
  - 바. A: 아현이가 뭐라고 했어요?  
B: 어제는 너무 바빠서 \_\_\_\_\_ . [평5]

‘-다고 하다’로 문법 항목을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1가)~(1다)와 같이 동사, 형용사,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즉, ‘-ㄴ/는다고

하다, -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의 대표 표현으로 '-다고 하다'를 사용한 것이다. (1라)는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이고 (1마)는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가 미래인 경우이다. (1가), (1나), (1라), (1마)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이고 (1다), (1바)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이며, (1바)는 전달하는 내용과 주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인 경우이므로<sup>6)</sup>, [평1~6]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2) 가. 지나 씨도 키가 크냐고 했어요. [의4]
- 나. 수미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청2]
- 다. 영민 씨가 같이 산에 가자고 하는데요. [청1]
- 라. 내일 늦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명2]

(2가)는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 (2나)는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2라)는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이고, (2다)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이므로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이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와 과거인 경우를 모두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모든 경우를 예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16번을 한 과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가. 공기도 맑고 경치가 아주 끝내준대요. [축약/평1-1]
- 나.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내요. [축약/의-1]
- 다. 비행기표를 안 샀으면 빨리 사래요. [축약/명1]
- 라. 친구들이 이번에는 강원도 쪽으로 가재요. [축약/청1]

간접 인용 표현 중 축약형은 3급 14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3)과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모두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앞 과와는 달리 구어성이 높은 '끝내주다'와 같은 어휘로 문장을 제시하려는

---

6) (1바)는 교재에 해당 부분이 빈칸으로 제시되어있지만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이 전달하는 내용과 주절 모두 시제가 과거형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노력이 보인다. 앞에서 배운 ‘-다고 하다’류의 축약형이라는 문법 설명을 제시하면서 여기에서는 축약형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표 4> <고려>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7)

단원	<고려>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3급 3과	-다고 하다	[평1], [평2], [평3], [평4], [평5], [평6]
	-냐고 하다	[의1], [의2], [의3], [의4], [의5], [의6]
	-자고 하다	[청1], [청2]
	-(으)라고 하다	[명1], [명2]
3급 14과	-대요	[축약/평1], [축약/평2], [축약/평3], [축약/평4], [축약/평5], [축약/평6]
	-내요	[축약/의1], [축약/의2], [축약/의3], [축약/의4], [축약/의5], [축약/의6]
	-개요	[축약/청1], [축약/청2]
	-(으)래요	[축약/명1], [축약/명2]

<고려>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은,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제시하여 해당 문법의 세부 항목을 규칙처럼 이해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달하는 문장의 형태가 다른 것을 말하기 연습에서 따로 각각 연습하기는 하지만 연계해서 제시함으로써 구분을 수월하게 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나 주절의 시제도 학습자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학습한 이후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다고 해요’와 ‘-다고 했어요.’의 차이를 따로 설명하였다. ‘-냐고 하다’의 경우,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이라서 그 의미를 살리는 ‘묻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냐고 물었다’와 같은 예문도 제시하였다.

### 3.2. <동국>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동국>은 <표 5>와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네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

7) 교재에서 문법항목의 제목으로 표기한 세부 문법 항목과 실제 예문으로 제시하는 예문의 범위는 <표 3>과 <표 4>의 경우와 같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 이 연구의 지면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예문을 검토하여 확인한 세부 문법 항목으로 작성한 <표 4>와 같은 형식의 표만 제시하기로 한다.

다. ‘-(ㄴ/는)대요, -(이)래요’와 같은 간접 인용 표현의 축약형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2급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3급에서는 ‘-다고 하다’와 같은 형태를 총 복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 <동국>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동국>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2A 2과(3)	-(ㄴ/는)대요	[축약/평1-1], [축약/평1-2]
	-(이)래요	[축약/평1-3]
2B 5과(1)	-았대요/있대요	[축약/평2]
	-(으)르 거래요	[축약/평3]
2B 5과(4)	-(으)래요	[축약/평1]
	-재요	[축약/평1]
	-(으)내요	[축약/의1], [축약/의2], [축약/의3]
3급 1과	-(ㄴ/는)다고 듣다	[평1], [평2], [평3], [평4], [평5], [평6] [축약형/평4], [축약형/평5], [축약형/평6]
	-(으)라고 하다	[평1], [평2], [축약/평2]
	-자고 하다	[평1], [평2], [축약/평2]
	-(느)냐고 묻다	[의1], [의2], [의3], [의4], [의5], [의6], [축약/의4], [축약/의5], [축약/의6]

<동국>은 <표 5>에서와 같이 <고려>와는 전혀 다른 구성으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 (4) 가. 선생님, 유카 씨가 아파서 학교에 못 온대요. [평1-1]
- 나. 에릭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대요. [평1-2]
- 다. A: 어디가 아프대요?
- B: 감기래요. [평1-3]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2급 2과(3)에서는 (4)에서와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고 시제가 현재인 것만을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급에서 학습한 어휘와 표현으로 자유롭게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 (5) 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대요. [축약/평2]  
 나.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가 있을 거래요. [축약/평3]  
 다. 먼저 가래요. [축약/명1]  
 라. 테니스를 치러 같이 가래요. [축약/청1]  
 마. 라면에 계란을 넣내요. [축약/의1]

2급 5과(1)과 5과(4)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면서 시제가 과거나 현재인 경우와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인 경우가 제시된다. 이렇게 해서 2급에서 구어성이 높은 축약형으로 간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고, 3급 1과에서는 2급 8과에서 쓰기체를 학습한 후 ‘-다고 하다’와 같은 형태로 간접 인용 표현의 모든 세부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다.

<동국>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초급학습자들의 초급 수준에서의 실제성 있는 발화를 위해 초급 후반에 간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초급이라는 학습 시기에 맞게 축약형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초급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구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약형을 먼저 선택했으며 제시 순서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기본으로 삼았다. 2급 초반인 2과에서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형태 중 시제가 현재인 경우만 다루었다. 문법 설명을 최소한으로 하고 대화 형식의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2급 후반부인 5과에서도 두 번으로 나누어 첫 번째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면서 시제가 과거나 미래인 경우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고려>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고려>에서는 중급인 3급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형인 ‘-다고 하다’의 형태를 먼저 제시하였지만, <동국>에서는 초급에서도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급 수준에 맞게 더 구어적인 축약형을 먼저 제시하였고,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세분화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3. <서강>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서강>은 <표 5>와 같이 여섯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통합교재 중 세부 문법 항목을 가장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분산 배치한 것이다.

<표 6> <서강>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서강>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2A 8과	-다고 하다	[평4-2], [평1-2]
2A 9과	-는다고 하다 <sup>8)</sup>	[평1-1]
	-았/었다고 하다	[평2]
	-을 거라고 하다	[평3]
2B 3과	-자고 하다	[청1]
2B 5과	-으라고 하다	[명1]
2B 8과	-냐고 하다	[의1]
3A 2과	간접화법 축약	[축약/평1], [축약/평2], [축약/평3], [축약/평4], [축약/평5], [축약/평6] [축약/청1], [축약/청1], [축약/명1], [축약/명1], [축약/의1], [축약/의2], [축약/의3], [축약/의4], [축약/의5], [축약/의6]

<서강>은 <표 6>에서와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먼저 제시하고 과거와 미래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인 경우를 차례로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3급에 가서 축약형을 모두 제시하였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6) 가.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평4-2]
- 나. 음식이 맛있다고 해요. [평1-2]

8) '-는다고 하다'는 '-니/는다고 하다'로, '-을 거라고 하다'는 '-(으)르 거라고 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해당 통합교재에서 표기한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 다. 보통 도서관에서 세 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했어요. [평4-1]
- 라. 어제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평2]
- 마. 아르바이트를 할 거라고 했어요. [평3]
- 바. 앤디 씨가 산책하자고 했어요. [청2]
- 사.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명2]
- 아. 선생님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냐고 했어요. [의4]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2급 8과에서는 (6)에서와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고 시제가 현재인 것을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활용에 있어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인 형용사와 결합하는 ‘-다고 하다’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동사와 결합하는 ‘-는다고 하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내용의 문장 유형이 다른 것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초급에서 학습한 어휘와 표현으로 자유롭게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 (7) 가. 유키 씨가 요즘 날씨가 좋대요. [축약/평1-2]
- 나. 모니카 씨가 오늘 아파서 학교에 못 온대요. [축약/평1-1]
- 다. 오늘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하세요. [축약/청1]
- 라. 가은 씨를 좀 도와주래요. [축약/명1]
- 마. 토요일에 약속이 있내요.<sup>9)</sup> [축약/의1]
- 바. A: 어디에서 모인대?  
B: 정문 앞에서 아홉 시에 모인대. [축약/평/1]

예문 (7)과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의 축약형은 3급 2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급에서 이미 간접 인용 표현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다루고 있다. 즉, 문법 항목의 제목도 ‘간접화법 축약’이라고 하여 다른 문법 항목이 그 형태를 그대로 제시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 문법 항목이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축약한다는 것으로 학

9) 교재에는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내요’를 이용해서 바꿔 말하기로 제시되었다.

습자들도 이해하길 바라기 때문인 것 같다. 축약형의 형태 소개도 ‘-대요/래요/재요/내요’를 이용하여 바꿔 말하기 활동으로 제시된 정도이다. 말하기 활동에서는 친구와의 반말 대화에서 (7바)와 같이 반말 형태로 축약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축약형의 화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강>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초급학습자들의 초급 수준에서의 실제성 있는 발화를 위해 초급 후반에 간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였고, 대화로 문법의 의미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기준으로 현재시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청유문, 명령문, 의문문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제시하였다. 초급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제시하다 보니 이렇게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 3.4. <서울>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서울>은 <표 7>과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세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 세 번을 1과, 2과, 3과로 연이어 배치했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면 현재 시제인 경우를 기준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살리고자 서술어를 ‘-하다’ 뿐만 아니라 ‘들었다’를 문법 표현의 제목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축약형도 같이 제시하였다. 그 다음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순으로 제시하였다. 전달하는 내용이 의문문인 경우에도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묻다’를 ‘하다’와 함께 제시하였다.

#### <표 7> <서울>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서울>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	-----------------	--------------

3A 1과	A-다고 하다	[평1-2]
	V-ㄴ다고/는다고 하다	[평1-1]
	N(이)라고 하다	[평1-3]
	A-다고 들었다	[평4-2]
	V-ㄴ다고/는다고 들었다	[평4-1]
	N(이)라고 들었다	[평4-3]
	A-대(요)	[축약/평1-2]
3A 2과	V-ㄴ대/는대(요)	[축약/평1-1]
	N(이)래(요)	[축약/평1-3]
	V-(으)라고 하다	[명1]
3A 3과	A-(으)냐고 하다[묻다]	[의1-2]
	V-느냐고 하다[묻다]	[의1-1]
	N(이)냐고 하다[묻다]	[의1-3]
	V-자고 하다	[칭1]

<서울>은 <표 7>에서와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기준으로 축약형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분석한 교재들과는 전혀 다른 구성으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 (8) 가. 크리스 씨는 요즘 바쁘다고 해요. [평1-2]  
 나.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해요. [평1-1]  
 다. 마이클 씨는 모임에 참석 못 한다고 했어요. [평4-1]  
 라. 민수 씨 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해요. [평1-3]  
 마. ‘한국 문화’라는 강의가 좋다고 들었어요. [평4-2]  
 바. 다니엘 씨가 방학에 고향에 간다고 들었어요. [평4-1]  
 사.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들었어요. [평4-3]  
 아. 외국어 수업을 하나쯤 들으면 좋대. [축약/평1-2]  
 자. 이번 학기에 시험을 두 번 본대요. [축약/평1-1]  
 차. 토니 씨의 취미는 요리하는 것이라요. [축약/명1-3]

(8가)~(8다)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고 시제가 현재인 경우인데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와 과거인 경우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8마)~(8사)는

서술어가 ‘하다’가 아닌 ‘듣다’인데 간접 인용 표현의 기능적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들었다’를 제시하여 이 문법 항목의 이해를 돕고 있다. (8아)~(8차)는 축약형인데 반말로도 제시하고 있다.

- (9) 가. 기숙사 조교한테 방을 바꿔 달라고 했어. [명2]
- 나. 빨리 나오라고 말해요. [명1]
- 다. 내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표가 있느냐고 물어볼게. [의1-1]
- 라. 히엔 씨에게 밖의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의4-2]
- 마. 친구가 제 동생을 보고 남자 친구냐고 물어서 웃었어요. [의1-3]
- 바. 날씨가 좋으면 수영하러 가자고 했어요. [청2]

(9)는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인 경우인데, 의문문인 경우 서술어를 ‘묻다’도 함께 제시하였다. (9다)는 구어성이 높은 반말로 제시하고 있는데 ‘있냐고’가 아니라 ‘있느냐고’로 제시하여 어색함이 보인다.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인 경우의 축약형은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평서문인 경우를 학습하였으니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서술>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기준으로 축약형까지 함께 제시하고 다른 문장 유형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평서문 이외에 다른 문장 유형의 축약형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도 특징적이다.

### 3.5. <연세>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연세>는 <표 8>과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네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교재들과 다르게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인 ‘-자고 하다’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을 차례로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인 ‘-으라고 하다’ 다음에 별도로 ‘달라고/주라고 하다’를 제시하는 것도 다른 교재와의 다른 점이다.

<표 8> <연세>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연세>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2급 7과(1)	-자고 하다	[청1]
2급 7과(2)	이라고/라고 하다	[평1-3], [평3]
	-는다고/ㄴ다고 하다	[평1-1], [평2]
	-다고 하다	[평1-2]
	-냐고 하다	[의1], [의2]
2급 7과(3)	-으라고 하다	[명1]
2급 7과(4)	달라고/주라고 하다	[명1]

<연세>에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항목을 제시한 순서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10가)와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인 ‘자고 하다’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교재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시한 것의 장점 중의 하나로 형태적 수월성을 들 수 있겠다. 간접 인용 표현의 대표 항목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달하는 문장과 결합할 때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자고 하다’이다. ‘자고 하다’는 청유문이므로 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고 전달하는 내용의 과거형이나 미래형도 없으며 형태의 활용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형태를 정확히 사용하는 데에도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항목 중에서 ‘자고 하다’가 가장 쉬운 것이다.

- (10) 가. 제임스 씨가 잠깐 쉬자고 합니다. [청1]
- 나. 저 아이는 열 살이라고 합니다. [평1-3]
- 다.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평3]
- 라. 독일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평1-1]
- 마. 선생님 아이가 귀엽다고 합니다. [평1-2]
- 바. 아버지가 딸에게 그 남자가 정말 좋냐고 물었습니다. [의4-2]
- 사.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 한국에 왔냐고 자주 물어요. [의2]

(10나)~(10마)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인데, 여기에서도 다른 교재와 다른 제시가 보인다. (10다)는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가 미래인 경우인데 이 예문을 ‘-이라고/라고 하다’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가 미래인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을 거예요’의 ‘거’가 명사이므로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형태적으로 구분하여 (10나)의 ‘저 아이는 열 살이라고 합니다.’와 같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10나)~(10사)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평서문과 의문문을 쌍으로 하여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가. 친구가 약속 시간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명1]  
 나. 선생님께서 책을 크게 읽으라고 했어요. [명2]  
 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약을 주라고 합니다. [명1]  
 라. 그 소설가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명2]

(11)은 전달하는 내용이 명령문인 경우인데 <연세>에서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7과(3)에서 ‘-으라고/라고 하다’를 제시하였지만, 7과(4)에 ‘주라고/달라고 하다’를 다시 따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오류가 많아 별도의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연세>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연세>는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인 경우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고,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형태 활용을 고려하였으며 오류가 많은 항목의 경우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축약형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도 특징적이라 하겠다.<sup>10)</sup>

### 3.6. <이화>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

10) <연세>에서는 축약형이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약형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축약형은 2급 7과에서 같이 다룬다고 한다.

<이화>는 <표 9>와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네 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과 의문문인 경우를 함께 제시하고 연이어 청유문과 명령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평서문과 의문문은 개별 제목으로 청유문과 명령문은 하나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축약형은 이와 다른 조합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만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은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표 9> <이화>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단원	<이화>에 제시된 세부 항목	<표 1>에 의한 분류
3-1 6과	-ㄴ/는다고 하다	[평1], [평2], [평3], [평4], [평5], [평6]
	-냐고 하다	[의1], [의2], [의3], [의4], [의5], [의6]
	-자고 하다	[청1]
	-(으)라고 하다	[명1]
3-2 8과	-ㄴ/는대요	[축약/평1], [축약/평2], [축약/평3]
	-내요	[축약/의1]
	-재요	[축약/청1]
	-(으)래요	[축약/명1]

예문으로 확인해 보자.

- (12) 가. 바빠서 참석 못 한다고 했어요. [평4-1]
- 나.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일찍 집에 갔어요. [평1-2]
- 다. 신문기자라고 했어요. [평4-3]
- 라. 저에게 내일 바쁘냐고 했어요. [의4-2]
- 마. 결혼했냐고 물어 보기도 했어요. [의2-1]
- 바. 시간이 있으면 수업 후에 같이 점심 먹자고 했어요. [청2]
- 사. 저에게 한국어 듣기 CD를 많이 들으라고 하셨어요. [명2]

(12)는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인 경우인데 모두 같은 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 제시하는 경우 종결어미

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 <이화>에서는 (12나)에서와 같이 ‘~ 아프다고 하면서 ~’로 연결어미와 함께 제시하였다.

- (13) 가. 다음 달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대요. [축약/평1-1]
- 나. 내일 날씨가 따뜻하대요. [축약/평1-2]
- 다. 내일이 수진 씨 생일이래요. [축약/평1-3]
- 라. 수진 씨가 내일은 몇 시에 모이내요. [축약/의1-1]
- 마. 아키라 씨가 주말에 같이 밥 먹재요. [축약/청1]
- 바.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래요. [축약/명1]

축약형의 경우 (13가)~(13다)와 같은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가장 먼저 따로 제시하여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13라)~(13바)와 같은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을 같이 제시하면서 이들을 한꺼번에 연습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을 각각 연습하는 것에 비해 세 종류의 문장 형태에 맞는 것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화>의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화>는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 제시할 때 연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제시하였다. 또한 축약형의 경우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만 따로 제시하고 나머지 셋을 한꺼번에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초급 후반에서 중급 초반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인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간접 인용 표현을 32개의 세부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각 교재에서 제시된 시기와 순서, 특징을 검토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모든 교재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직접교수법으로 가르치는, 즉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기관의 경우 예외 없이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시 시기가 이른 경우 세부 문법 항목을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동국>과 <서강>의 경우 2급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간접 인용 표현의 대표형을,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것으로 삼았으며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가 과거인지 미래인지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전달하는 내용의 시제를 현재 먼저, 그 다음 과거, 미래 순으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였다. 셋째, 제시 시기가 늦은 경우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연이어 제시하여 해당 문법의 세부 항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고려>와 <서울>이 그러하다. 넷째,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인 경우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태적으로 쉽고 활용도 간단한 전달하는 내용이 청유문인 경우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교재집필 의도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다섯째, 각 교재는 축약형의 제시 양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2급 중반에 간접 인용 표현을 처음 제시하는 <동국>에서는 더 구어적인 축약형을 먼저 제시하였고, <연대>처럼 축약형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축약형을 제시할 때 구어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문에 반말을 추가한다든지 ‘끝내주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여 구어적인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일곱째, 전달하는 내용의 문장 유형에 따라 세부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달하는 내용이 평서문이면 ‘듣다’를 의문문이면 ‘묻다’를 추가하였고, ‘주라고/달라고 하다’를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간접 인용 표현을 학습자 모어로 교수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고민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국어학 차원에서 잘 정리된 규칙을 조리 있게 설명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인용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로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학습자 모어가 아닌 한

국어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간접 인용 표현의 세부 문법 항목을 나누어 어느 것부터 먼저 제시하고 어떤 예문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한데, 분석 결과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각 기관의 교육 철학에 따라 즉, 해당 기관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건이 기준이 되어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에 대해 주요 대학의 통합교재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는데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Indirect Quotation  
Expressions

Choi, Eun Kyung  
Dongguk University

This essay i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Indirect Quotation Expressions covered by integrated textbooks of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s(KLI), attached to six universities in Korea.

Teaching grammar in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courses means to make students understand features and functions of relevant grammar items, not general grammatical knowledge, and actually use Korean colloquially. These courses are usually lectured in Korean. Therefore, for complicated items, it is important to decide whether which details they are divided into and what order examples they are provided through.

Indirect Quotation Expression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grammar items KLI's integrated textbooks necessarily contain in the late beginning level or the early intermediate level of KSL. This essay analyses the textbooks and arrang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o study the presentation methods of Indirect Quotation Expressions. Especially, for such a purpose, this essay divides the Expressions into 32 detailed items and looks through not only levels and orders in which each textbook shows the items but also their characteristics.

Key Words: Indirect Quotation Expression, contraction, analysis on Korean textbooks, grammar item, detailed grammar items, spoken language, order of presentation

## 참고문헌

### □ 단행본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2010.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2A,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2B,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함께 배워요 한국어 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2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2008.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2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2008.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3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200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3A, 투판즈, 201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2-2, 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3-1, Epress, 201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3-2, Epress, 2011.

### □ 논문

- 강정미,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의 장르 기반적 특징 연구: 인용표지 ‘-다고’의 간접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고경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간접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검토」,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2014, 141-163면.  
김문기,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 항목 제시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7, 우리말학회, 2010, 245-267면.  
김재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65-91면.  
김지혜,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011, 46-65면.  
백낙천, 「접속어미 ‘-느라고’와 ‘-으려고’에 대하여」, 『국제언어문학』 26호, 국제언어문학회, 2012, 203-222면.  
서희정,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용 종결어미의 인용 정보와 의미기능」,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245-271면.  
서희정, 「-다고’ 보문과 ‘-다는’ 보문을 연계한 완형보문 교육 연구」, 『국어국문학』 174, 국어국문학회, 2016, 31-70면.  
석주연·양명희,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의 제시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 -“표

- 현”을 중심으로」, 『泮矯語文研究』 32, 국어국문학회, 2013, 51-73면.
- 송창선, 「국어 인용표지 ‘이라고, 고’의 문법적 특성」, 『어문학』 131, 한국어문학회, 2016, 33-54면.
- 유해준, 「한국어 교육용 문법 항목 제시 양상: 한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57, 중앙어문학회, 2014, 407-424면.
- 이금희, 「국어학 작문교육 : 한국어 교육에서의 간접인용문 변형」, 『泮矯語文研究』 26, 반교어문학회, 2009, 81-102면.
- 이병규(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종철, 「인용 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2001, 351-380면.
- 장미라, 「한국어 인용문의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2008, 419-438면.
- 채숙희, 「인용의 ‘-대(요)’류의 용법과 분류」, 『언어학연구』 35, 한국중원언어학회, 2015, 347-366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205-230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형식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은경,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의 중요성」, 『한국어문학연구』 6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3, 395-420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연결형식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4, 559-583면.
- 한송화, 「인용문과 인용동사의 기능과 사용 양상: 신문 기사와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1-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4, 241-266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1월 2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